

현대자동차, 고령자 맞춤형 교통 안전교육 나선다

‘시니어 교통안전 골든벨’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18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신텍스에서 ‘제 4회 시니어 교통안전 골든벨’을 개최하고, 다양한 시니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시니어 교통안전 골든벨’은 현대차그룹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의 우수 수료자들이 참가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퀴즈대회로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예선을 거쳐 총 400명이 참가했다.

대회 주제는 ‘시니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으로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와 교통사고 예방법 ▲실생활 교통안전 ▲교



18일 경기도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의 ‘제4회 시니어 교통안전 골든벨’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안전 표지판의 의미 등 다양한 퀴즈 풀이를 통해 최종 3인의 입상자가 선정됐다.

현대차그룹은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2016년부터 도로교통

공단,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서비스 힐링캠프로 임직원 ‘토닥토닥’

8개 지역서 임직원 재충전 프로그램

삼성전자서비스가 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경주, 제천, 거제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임직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힐링캠프’를 실시한다. 힐링캠프는 서비스 업종 특성상 감정노동에 노출되기 쉽고 특히 여름철 늘어난 업무량으로 심신의 스트레스가 컸던 임직원들의 재충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힐링캠프에는 수리 엔지니어, 상담사 등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대면하며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260여 명이 참여한다.

개인 심리 분석, 요가와 명상을 통한 치유, 힐링 산책 등이 진행되며 각 지역별 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역사 문화 탐방 등 이색 야외 행사도 실시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올해 1월 협력업체 직원 7400여명의 직접고용으로 전체 구성원이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이 요가 강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대폭 증가하면서 임직원들의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내상담실을 확대하고 있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오늘의 운세

9월 19일 (음 8월 2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과거 그때가 좋았다. 48년생 계획 없이 일을 처리하다가는 낭패. 60년생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72년생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상대에게는 고통. 84년생 새로운 것만 찾다가 큰코다친다.



37년생 모처럼 반가운 손님이 온다. 49년생 욕심이 지나쳐 남들을 불편하게 한다. 61년생 이해관계로 가족과 다툼이 예상. 73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옷차림에도 신경 써라. 85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한다.



38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아온다. 50년생 현상유지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 62년생 사소한 인연도 소중히. 74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86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아하는 것은 당분간 보류.



39년생 자손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 51년생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라. 63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도 올 것이다. 75년생 신심으로 예의를 지키면 복이 온다. 87년생 타인의 말에 공연히 휘둘리지 말고 교과서적으로 행동.



40년생 신경 쓸 일이 많으니 위장질환을 주의. 52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피하는 게 좋다. 64년생 내가 믿어야 상대도 설득. 76년생 웃지 않고 보면 낯은 의미 없는 날. 88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흐르는 대로 노력.



41년생 성실함이 강력한 힘이다. 53년생 철학같이 깔끔하나 곧 색채이 온다. 65년생 능력 없는 일은 아예 손대지 말자. 77년생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89년생 백만 송이 장미가 바닥에 깔렸으니 행복한 날.



42년생 표현을 해야 남들도 알아준다. 54년생 정확한 거절이 상대에게도 도움. 66년생 착한 친구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 78년생 자식으로 인해 마음이 뿌듯하고 날아갈 듯. 90년생 내가 좋다고 남들도 다 좋은 것은 아니다.



43년생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이 이루어진다. 55년생 삶이 지루하고 흥미가 없다. 67년생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기 전에 겨울을 준비. 79년생 앞에 나서게 되나 타인의 질투를 받는다. 91년생 골치 아팠던 일이 주변 도움으로 해결.



44년생 위기를 겪으며 확실한 내편을 안다. 56년생 머리만 믿고 있다가 일을 그르치니 주의. 68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흔들리는 것은 당연. 80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92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하다.



45년생 명상을 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자. 57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해결될 일. 69년생 조만간 능력을 인정받고 축하받는다. 81년생 다뤄주 헛바퀴 돌리는 것처럼 단조로운 하루. 93년생 한발 물러서도 그다지 손해는 아니다.



46년생 친구와 남쪽으로 길을 떠나면 행운이 있다. 58년생 망설임이 의외로 좋은 결과. 70년생 일시적인 감정으로 상대의 오해를 산다. 82년생 기대를 많이 한 일에 실망이 크다. 94년생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1명만 있어도 성공.



47년생 책임진 일을 쉽게 처리. 59년생 바람이 불어와도 중심만 잘 잡으면 된다. 71년생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니 잠시 일을 늦추자. 83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잘 다스려라. 95년생 성과가 작아도 만족하라.

실패해도 ‘진짜’ 괜찮아



기자 수첩

배한님
(산업부)

“성공은 실패의 시체탑 위에 올려진 예쁜 조약돌이다. 성공과 실패가 이분법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성공의 원재료는 실패다.”

지난 8월, 전남 여수에서 열린 벤처섬머포럼에서 박병준 콜버스랩 대표의 강연을 들었다. 박 대표는 ‘스타트업은 연역법이 아닌 귀납법’이라 설명하며 실패가 쌓여야만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냥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보다 좀 더 가슴에 남았다. 박 대표는 “실패가 우리 사회의 지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의 말처럼 실패는 성공의 토대요, 사회적 자산이다.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은 순전히 운이다. 실패는 습관이 아닌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스타트업계와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3일간 ‘실패박람회’를 연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실패박람회는 다양한 실패경험을 나누고 재도전을 장려해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캠페인이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런 실패박람회가 실패했을 때 다시 재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보다 전시나 강연, 콘서트 등 문화 행사가 주를 이룬다. 말뿐인 응원이 아니라 실패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응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난 10일 열린 ‘재도전 기업인 간담회’에 참가한 박진영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재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재도전 성공패키지가 유일하다”고 토로했다.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재도전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도전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해서 배정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창업 도전자들에게 진짜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 지원이 늘어 국민들이 실패해도 ‘진짜’ 괜찮다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ricabae1683@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떠난 사랑 아쉬워마라

도덕을 배우며 사랑을 얘기하자면 혼란스럽기 까지 하다. 수많은 유행가 가사나 영화와 드라마는 온통 사랑 얘기 일색이다. 그런데도 사랑이란 끊임없이 영원한 인간의 주제이다. 얼마 전에도 유명한 젊은 연예인부부가 알콩달콩 예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혼 얘기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그런데 여배우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정을 지키겠다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신뢰가 깨졌다며 이혼 수순을 밟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제는 한 날 쓸쓸한 옛 사랑의 그림자만 남을 뿐 오히려 사랑은 가고 행하니 적막감만 남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인생사의 운항과 굴곡을 팔자를 떠나서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인터넷에 나오는 생일을 통해 애정운이나 결혼운을 감명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유명 연예인들이라 더 화제에 오르겠지만 비단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사람들 말고도 일반 보통 사람들 역시 처음엔 불꽃이 가까워지고 사랑에 빠져도 헤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더 나아가 철천지원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던가.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본다. 도대체 사랑의 시효는 언제까지 일까 하는. 그래 나 싫다는 사람 쿨하게 보내주면 안될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랑꾼들이 헤어질 때는 예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만약 떠나는 사람에게 담담한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오히려 떠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때인가는 후회감이 들며 재결합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커플들마다 사연이 다르고 서로의 성격도 다르니 담백한 이별의 휴여나 있을 전화위복을 기대하기란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떠나는 사람의 웃기는 잡는 법이 아니다. 사람의 심리가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도망치게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2	5			1	8
2	9		1				7	
					6			
4				7	5		2	
9	8				1		3	4
	1			6				
8	2		4	1			5	
	7					3	4	

	7			4			6	
			6		9			
5	6			7			8	3
		4	3	5	2	7		
				1				
		7	4		8	5		
		5				6		
	4	2				8	5	
	1	6				9	4	

스도쿠 정답								
1	7	5	2	8	5	6	2	9
9	5	6	2	1	7	5	2	8
2	8	2	5	9	6	7	1	5
5	9	1	7	6	8	2	5	4
7	5	2	1	2	9	5	8	6
6	2	8	5	2	5	1	9	7
2	6	7	9	5	2	8	5	1
5	2	5	7	1	9	6	2	8
8	1	9	6	5	2	2	7	5
2	7	6	5	5	8	9	1	2
1	5	8	2	9	6	2	7	5
2	5	9	7	2	1	5	8	6
9	2	5	8	6	7	2	5	1
7	6	5	9	1	2	8	5	2
8	1	2	5	5	5	6	9	7
5	8	7	1	2	6	9	5	2
5	2	1	6	8	9	5	2	7
6	9	2	5	7	5	1	2	8

문제 제공= **보스**